

섬섬여수팀, '한국여자바둑리그' 출전 결단식

오는 23일 개막전 시작해 10월까지 6개월 대장정
우승 목표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홍보 앞장

11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섬섬여수팀이 한데 모여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은 선수단과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주시의회위원장, 김종길 여주시의회부위원장, 명경식 여주시체육회장, 여주시 바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선수단은 출전 다짐문을 낭독하며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전승 신화와 여주시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이어받아 우승을 목표로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홍보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섬섬여수팀은 김혜민 9단, 이영주 3단, 김노경 초단, 김민정 초단으로 구성됐다. 지휘봉은 2018년부터 감독으로 계속 활동한 이현욱 9단이 맡는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NH농협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우승 5,500만 원, 준우승 3,500만 원, 3위 2,500만 원, 4위 1,500만 원 등 총 상금 1억 3,500만 원이 걸렸다. 여수를 대표해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출전할 섬섬여수팀은 오는 23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리그는 전국 8개 팀이 참가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 보약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난 섬섬여수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섬섬여수팀은 지난해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아쉽게 정규리그 2위, 팀총합 3위를 기록했으며, 최고성적은 2018년 정규리그 1위, 포스트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여자바둑리그는 한국기원 바둑TV에서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섬섬여수팀이 11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주시의회위원장, 김종길 여주시의회부위원장, 명경식 여주시체육회장, 여주시 바둑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2021 한국여자바둑리그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프로야구 롯데, 결국 허문회 감독 '경질'

퓨처스팀 서튼 새사령탑 선임

불 통과 불화의 끝은 결국 경질이었다. 그라운드 바깥의 여러 소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롯데 자이언츠가 개막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칼을 빼들었다. 롯데는 11일 허 감독을 경질해서 새 사령탑으로 래리 서튼 퓨처스팀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9년 겨울 3년 계약을 맺고 '구도' 부상에 안착한 허 감독은 계약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쓸쓸히 집을 쫓겼다. 롯데는 허 감독 부임 첫 해인 지난 시즌 71승1무72패로 10개팀 중 7위를 차지했다. 1년 전 48승(3무93패)보다 23경기를 더 이긴 것은 분명 성과였지만 허 감독을 향한 평가는 썩 좋지 않았다. 원했던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벤치가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잠을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타팀과 달리 유망주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 감독은 적잖은 질타를 받았다. 부임 첫 해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2021시즌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롯데는 초반 30경기에서 12승(18패)을 챙기는데 그쳤다. 10개팀 중 최하위다.

지난해 시끄러웠던 허 감독과 성민규 단장과의 불화설은 올해도 계속됐다. 4월 중순 포수 지시완의 엔트리 말소로 재점화된 논란은 시즌 초반 사발결음을 내던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허 감독에게 치명타가 됐다. 롯데는 허 감독 경질 보도자료에 "이번 결정은 구단과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차이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감독 경질을 알리면서 '방향성의 차이'를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떤 식이든 현장과 프런트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구단이 자인한 셈이다. 취임 기자회견 당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시리즈도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던 허 감독은 가을야구를 구경조차 못한 채 롯데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허 감독의 후임으로 서튼 퓨처스팀 감독이 선임되면서 KBO리그는 역사상 최초의 한 해 3명의 외국인 사령탑 시대를 맞이했다. 서튼 감독은 당장 이날로 예정된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부터 1군 지휘봉을 잡는다.

부임 첫 해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2021시즌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롯데는 초반 30경기에서 12승(18패)을 챙기는데 그쳤다. 10개팀 중 최하위다.

지난해 시끄러웠던 허 감독과 성민규 단장과의 불화설은 올해도 계속됐다. 4월 중순 포수 지시완의 엔트리 말소로 재점화된 논란은 시즌 초반 사발결음을 내던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허 감독에게 치명타가 됐다. 롯데는 허 감독 경질 보도자료에 "이번 결정은 구단과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차이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감독 경질을 알리면서 '방향성의 차이'를 언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어떤 식이든 현장과 프런트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구단이 자인한 셈이다. 취임 기자회견 당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시리즈도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던 허 감독은 가을야구를 구경조차 못한 채 롯데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허 감독의 후임으로 서튼 퓨처스팀 감독이 선임되면서 KBO리그는 역사상 최초의 한 해 3명의 외국인 사령탑 시대를 맞이했다. 서튼 감독은 당장 이날로 예정된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부터 1군 지휘봉을 잡는다.

부임 첫 해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2021시즌을 맞이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롯데는 초반 30경기에서 12승(18패)을 챙기는데 그쳤다. 10개팀 중 최하위다.

주민규, K리그1 4월 기대득점 1위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니타드 주민규(31)가 4월 기대득점 1위인 공격수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공개한 '4월 K리그1 기대득점(xG) & 공격 완성도 톱5'에서 주민규는 총점 2.68점으로 기대득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주민규 다음으로 울산 현대 바코(2.35점), 광주FC 펠리페(2.03점), 전북 현대 일류첸코(1.91점), 울산 현대 김인성(1.76)이 톱5에 올랐다.

K리그2에선 경남FC 에르난데스가 기대득점 1.90점으로 1위에 올랐고, 전남 드래곤즈 이종호(1.44점), 김진상 무조성(1.41점), FC안양 조구성(1.29점), 모재현(1.25점)이 톱5를 차지했다. 4월 공격완성도 순위에서는 정규리그 최하위인 광주FC가 1위였다. 광주는 개막 후 4승1무3패를 기록 중인데, 이 중 3승이 4월에 나왔다.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 광주 연고...내일 조인식

초대 감독 김형실 전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장 선임

여자프로배구 7구단 승인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이 연고지를 광주로 확정하고 오는 13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 등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이 연고지를 광주로 확정하고 13일 조인

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인식에서는 광주시의 지원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여자프로배구 7구단 창단 승인을 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27일 메튜장 대표 등이 광주시가 배구경기장으로 추천한

여주종합체육관과 빙고올체육관, 광주여대체육관 등을 실사했다. 당시 페퍼저축은행은 경기장 시설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퍼저축은행은 김형실(70) 전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장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했으며 헝가리 출신 라이트 공격수 바르가를 지명했다. 기동취재본부



"내가 든 거야?" 제80회 문국 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강진군 종합운동장 제1실내체육관에서 여고 단체전에 출전한 경기 안산공고 박혜정 선수가 한국 학생 신기록인 인상 125kg에 성공한 뒤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2020년 +87kg급 한국 여자고등부 전관왕인 박혜정 선수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여자역도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의 고2 기록을 넘어선 유망주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81kg급으로 출전해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전남여고 김보경, 10년 만에 전국대회 금빛 총성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여고부 10m 공기소총 금메달

전남여고 3학년 김보경 선수가 제 22회 미추홀기 사격대회 여고부 공기소총 10m 개인전에서 마지막 격발까지 울산여상 장정인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247.1을 기록해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김보경·이채연·손채연·이채원)에서는 함께 1,859점으로 아쉽게 4등에 머물렀다.

전남여고 사격팀 김희숙 감독은 "지난해 9월 교내 사격장을 신축하면서 전자표적과 같은 첨단 경기 보조시설을 구축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됐다"며 "올해 3월 체육과 출신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체력 훈련과 멘탈 강화 훈련을 병행한 것이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여고 사격팀 김희숙 코치는 "김보경 학생은 격발 시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기관리가 철저해 한국 사격의 차세대 기대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기량이 탁월한 만큼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



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고진영·박인비·김세영, 女골프랭킹 1·2·3위 유지

7위 김효주 유지...유소연 15위·이정은 18위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들이 여전히 1, 2, 3위를 유지했다. 고진영(26)과 박인비(33), 김세영(28)은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여전히 1, 2, 3위를 달렸다. 김효주(26)는 7위를 유지했다.

고진영은 9.64를 기록해 박인비(8.75)에 크게 앞서고 있다. 넬리 코르다(미국)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이랜드에서 우승한 에리아 쟈타누간(태국)은 33위에서 21위로 올랐다.

유소연(31)은 15위, 이정은(25)은 18위, 장하나(29)는 19위, 박성현(28)은 20위에 올라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7회 교촌 하니 레이다스에서 우승한 박보미(29)는 세계랭킹 242위에서 147위로 수직 상승했다. 뉴시스

프로농구 FA 최대어 송교창

"KCC, 나에게 제일 중요한 팀"

고졸 최초 정규리그 MVP

프로농구 자유계약(FA) 최대어 송교창(25·KCC)이 "모든 면을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면서도 "KCC는 나에게 제일 중요한 팀"이라며 원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송교창은 11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2021 FA 설명회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아직 연락이 온 팀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서 평균 15.1점 6.1리바운드 2.2어시스트를 기록한 송교창은 KCC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고졸 출신으로는 최초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하며 고졸 신화를 썼다.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 발가락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해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다. 송교창은 "첫 FA다. 많이 떨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직 연락이 온 팀은 없다"고 답답히 말했다.

송교창은 고교 졸업 후, 곧장 프로에 데뷔해 20대 중반으로 젊다.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KCC의 부름을 받았다. 다른 FA 경쟁자들과 비교해 매력적인 요소다. 또 스포츠포워드 포지션에선 리그 최정상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2019년 김중규(DB)가 장원 LG에서 원주 DB로 이적하면서 받은 보수 총액 12억79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송교창은 "김중규의 최고액을 넘고 싶으냐"는 질문에 "최고 연봉이라는 건 선수라면 모두 받고 싶은 게 분명하다"면서도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챔피언결정전이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쉬면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승준·동준 형제, 도쿄올림픽 3대3농구 예선 최종엔트리 포함



남자농구 3대3 이승준(왼쪽)과 이동준 형제

이승준, 이동준(이상 한솔레미콘) 형제가 2020 도쿄 올림픽 3대3 농구 1차 예선 최종엔트리에 승선했다. 11일 대한민국 농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남자 3대3 농구 예선에 나서는 최종엔트

리에 이승준, 이동준 형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둘 외에 박민수, 김민섭(이상 하늘내리인제)까지 최종엔트리는 총 4명이다. 이승준과 이동준은 프로농구 울스타 출신으로 과거 5대5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험이 있다. 은퇴 이후 3대3 무대를 통해 여전히 기량을 뽐내는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최종 4명을 선발했다. 선수단은 이달 25일 오스트리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뉴시스